

# 검사를 받으십시오!

권장된 암 검사는 당신의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 검사에 대해 담당 의사나 간호사에게 물어보십시오.

## 권장되는 암 선별검사

25세 ~ 39세	40세 ~ 49세	50세 이상	용어집
<p><b>결장직장암 선별검사</b></p> <p>당신이 결장암 또는 직장암에 걸릴 위험이 높은지의 여부를 알아보십시오. 아니면, 지금은 선별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p>	<p><b>결장직장암 선별검사</b></p> <p>45세부터 정기 선별검사를 시작하여 75세까지 계속 받아야 합니다. 76~85세의 경우, 선호도, 기대 수명, 전반적인 건강 상태, 이전 검사 이력 등을 고려하여 선별검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몇 가지 종류의 검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검사가 당신에게 가장 좋은지에 대해 의료인과 상담하십시오. 어느 검사를 선택하든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것은 검진을 받는 것입니다.</p>	<p><b>결장직장암 선별검사</b></p> <p>이들 검사는 결장직장암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기가 더 용이할 수 있는 조기에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장직장암은 암이 되기 전에 용종을 발견하여 제거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습니다.</p>	
<p><b>전립선암 선별검사</b></p> <p>현재로서는 선별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p>	<p><b>전립선암 선별검사</b></p> <p>45세부터, 고위험군 남성, 모든 흑인 남성, 65세 이전에 가까운 가족 구성원이 전립선암을 앓은 적이 있는 남성은 선별검사의 잠재적 위험과 이점에 대해 의료인과 상의해야 합니다. 고위험군 남성(65세 이전에 전립선암을 앓은 일흔 친척이 한 명이 넘는 남성)은 40세부터 이런 논의를 의료인과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직장수지검사를 수반하거나 수반하지 않고 PSA 혈액검사를 받을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p>	<p><b>전립선암 선별검사</b></p> <p>50세가 되면, 전립선암의 평균 위험이 있고 최소 10년 이상 더 살 것으로 예상되는 남성은 선별검사의 잠재적 위험과 이점에 대해 의료인과 상담하여 선별검사가 자신에게 적합한지 결정해야 합니다. 선별검사를 받기로 결정한 경우, 직장수지검사를 수반하거나 수반하지 않고 PSA 혈액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얼마나 자주 선별검사를 받을지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p>	<p><b>전립선암 선별검사</b></p> <p>전립선-특이 항원(prostate-specific antigen: PSA)의 혈중 농도는 전립선암뿐만 아니라, 다른 병태도 있는 남성에서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의료인은 직장수지검사를 통해 전립선에 혹이 있거나 전립선이 비정상적인 크기인지를 확인합니다.</p>
<p><b>유방암 선별검사</b></p> <p>당신이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높은지의 여부를 알아보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현재로서는 선별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유방이 모양이나 느낌에 변화가 있다는 느낌이 보이면 즉시 담당 의사나 간호사에게 알려 주십시오.</p>	<p><b>유방암 선별검사</b></p> <p>40세에서 44세의 여성은 원하는 경우 매년 유방조영상을 통한 유방암 선별검사를 시작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어야 합니다. 45세부터는, 매년 유방조영상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p>	<p><b>유방암 선별검사</b></p> <p>45세에서 54세까지는 매년 유방조영상 검사를 받고, 55세부터는 2년마다 받는 것으로 전환하거나 계속 매년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최소 10년 이상 더 살 것으로 예상되는 한 선별검사를 계속 받아야 합니다.</p>	<p><b>유방조영상</b></p> <p>선별 유방조영상은 유방 증상이나 문제가 없는 여성에서 유방암 징후를 찾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사용하는 유방 x-선 촬영상입니다.</p>
	<p><b>자궁경부암 선별검사</b></p> <p>자궁경부가 있는 25~65세 여성은 5년마다 1차 HPV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차 HPV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5년마다 합동 검사를 받거나 3년마다 자궁경부암 단독 검사를 받으십시오.</p> <p>지난 10년 동안 정기 자궁경부암 선별검사를 받고 정상 결과가 나온 66세 이상은 선별검사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p> <p>심각한 자궁경부 전암을 앓은 적이 있는 사람은 선별검사 기간이 65세 이후를 넘어가더라도 진단 후 최소 25년 동안은 선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p> <p>수술로 자궁경부와 자궁을 제거한 사람은 자궁경부암이나 심각한 전암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이 아니라면 선별검사를 중단해야 합니다.</p> <p>HPV 백신을 접종한 사람도 해당 연령대에 대한 선별검사 권장사항을 따라야 합니다.</p>		<p><b>Pap 검사</b></p> <p>Pap 검사는 자궁경관의 세포 변화 또는 이상 세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p> <p><b>HPV 검사</b></p> <p>사람 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 HPV) 검사는 그 바이러스를 확인하는 것이고 Pap 검사와 동시에 실시될 수 있습니다.</p> <p><b>1차 HPV 검사</b></p> <p>선별검사를 위해 단독으로 실시하는 HPV 검사</p> <p><b>합동 검사</b></p> <p>HPV 검사와 Pap 검사를 함께 하는 검사</p>
		<p><b>폐암 선별검사</b></p> <p>현재 흡연 중이거나 흡연한 적이 있고, 50세에서 80세 사이이며, 1년에 20갑 이상의 흡연 이력으로 폐암 위험이 높은 경우, 매년 저선량 CT 검사를 통해 폐암 선별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p>	<p><b>폐암 검사</b></p> <p>흡연을 하거나 흡연을 하였던 사람들은 폐암에 걸릴 위험이 더 높습니다. 본인의 폐암 위험도와, 조기 폐암 선별검사를 받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 한계, 및 피해에 대해 의료인과 상담하십시오.</p>



보험은 통상적으로 예방 및 선별검사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당신의 구체적 의료상 이익을 조사하여 확인하십시오. 보험이 없거나 선별검사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cancer.org/getscreened](https://cancer.org/getscreened)를 방문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어느 종류의 암에 걸렸던 경우 또는 모친, 부친, 형제, 자매 또는 자녀가 암에 걸렸던 경우에는 담당 의사나 간호사에게 반드시 알려 주십시오.

특정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 일부 암에 대한 선별검사를 더 일찍 시작하거나 더 자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담당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cancer.org](https://cancer.org) | 1.800.227.2345